

역사적 고비마다 정론 펼친 참언론

내가 본 광주일보

김 황 식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전 국무총리〉

광주일보가 28일자로 지령 2만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1일자로 전남일보를 창간한 이래 63년이라는 긴 세월을 씬 일이 달려 온 결과입니다. 1980년 12월 1일에는 옛 전남매일신문과 통합되어 제호가 광주일보로 바뀌었지만 광주일보는 그 동안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전체 호남인들과 애환을 같이 하며 호남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6·25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어두웠던 시기에 광주일보의 창간은 이 지역에 등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의 목탁으로서 정확한 뉴스 전달과 정론을 펼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창간 초기의 ‘전일단축마라톤 대회’, ‘호남예술제’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무등문화상’ 창설, ‘월간예향’ 창간, ‘무등산 갈대제’ 창설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이 지역을 단합시키고 품격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 항쟁 때는 그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열흘 이상 정간하는 아픔을 겪는 등 고비 때마다 시대적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광주일보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등학교 시절 호남예술제가 열리면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싸이고 제 마음도 설렘을 느낍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소중한



“호남인과 63년 애환 함께해 호남예술제 땀 온도시 축제 법원장 시절 칼럼 연재 보람

감성 교육의 시기였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신문을 꼼꼼히 챙겨 읽어 나름대로 지식과 교양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가십 코너인 ‘쌍나팔’과 임병성 화백의 만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 가면서 광주일보와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마저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대표 신문이자 지인들이 열심히 일하며 제작하는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 제가 광주지방법원

장으로 부임하면서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법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국민들이 전해 들어 유익한 법관들의 생각이나 사정들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이 법원을 마음 편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일보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광주일보에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라는 고정칼럼란에 법관들이 돌아가며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먼저 “법원,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고 그 후 수십명의 법관들의 글쓰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월요일자 신문이 배달되면 그 난부터 챙겨 읽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지역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뒤떨어지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실력을 키워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광주일보가 이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립니다.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온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라 이 지역을 더욱 경쟁력 있고 세련된 지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광주일보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더 큰 용기와 지혜로 지역미래 이끌길

광주일보가 나아갈 길

최 승 호

〈전 광주일보 사장〉

지금도 불러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따라 그 옛날 목청껏 불렀던 광주일보의 노래(社歌)가 새삼 가슴 속에서 벅차오른다.

“가시덤불 헤치며 성실한 나날 겨레의 고통이 메아리 친다...” 그러니까 오늘의 광주일보는 6·25의 민족전란을 겪으며 태어난 전남일보와 4·19 혁명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 전남매일신문이 5·18이라는 현대사의 큰 파도 속에 한 몸통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한마디로 가시덤불의 역사이자 이 나라 이 겨레의 고통이요 맥박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살아있는 증인이며 호남인의 자존이자 새 시대 새 역사를 밝혀나갈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날 40년 세월을 광주일보와 함께 해온 나는 오늘 어느새 굵어진 지령(紙齡) 2만호의 나이테 앞에 새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어떤 말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찬사와 박수로 꽃다발을 보내야 할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아서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언론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언론자유와 문제이거나 아니면 언론통제도 아닌 언론 스스로 불러들인 방만과 무질제의 이중적 비현실성 탓이 아닌가 한다. 신문이 사회 소통의 유일한 수단이던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신문이 지키고 있어야 할 지리는 점점 좁아지는지 그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이 또한 우리 언론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암울했던 지난 50년대나 60년대에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아왔던 신



“가시덤불 헤쳐온 호남의 자존 광주일보 만의 포용력으로 영원히 빛나는 신문 되길

문. 그래서 우리는 사시에 내건 그대로 지역개발의 기수임을 자처하지 않았던가. 유신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70년대 해도 지역차별을 외치며 지역민을 위한 언론통제의 사슬을 해쳐 나갔다.

이른바 ‘호남 푸대접’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외면 당한 호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했던 것은 우리의 자존을 살리고 긍지를 높이는 자연보호 캠페인이었으며 농촌살리기 운동이었으니 ‘락토(樂土) 호남’ 기획물과 ‘부농(富農)’ 시리즈였다. 국가안위를 생각하며

호남의병의 혼을 재발굴한 ‘의병열전(義兵列傳)’을 연재했던 것도 이 무렵이다.

그리하여 80년대 새롭게 태어나면서 군부독재의 만행을 고발하여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고 외쳤으며 ‘아아, 광주여...’라며 분통을 터트리지 않았던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현대사의 한 중심에 서서 이토록 처절하게, 이토록 눈물겹게, 그리고 이토록 가슴 미어지게 외쳐본 적이 또 있었을까 싶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언론홍수를 맞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단순히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신문시장의 혼란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형언론들의 지역 언론에 대한 피말리기이자 지방신문 죽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환경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면 지역 언론의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오늘 지령 2만호의 나이테를 먹고 자란 광주일보의 길 또한 아직도 가시밭길이다. 이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지역민의 사랑만을 애처롭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슴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고민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저하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광주일보 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광주일보의 나이테가 더욱 굵어져서 그 어떤 지각변동이나 천재지변에도 흔들림 없는 금자탑으로 서서 영원토록 빛나주기를 바라며 지난날 목청껏 불렀던 광주일보의 노래 끝 구절을 다시 한번 큰소리로 외쳐본다.

“...마음마다 집마다 웃음을 심는 새 역사의 모퉁이다. 등불이다. 빠른 소식 사명 양심의 목탁. 군세아라, 빛나라, 광주일보”

등록금 애타는 법학도에 등불이었다

광주일보와 나

최 인 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60년 넘도록 시민의 등불이 되어 사회를 밝혀 온 광주일보의 지령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해방 이후 다이내믹한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와 호남의 가슴시린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면서 언론의 참된 사명을 감당해 온 광주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지역 시민이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과 연대하는 광주일보의 빛나는 전

“입학금 없어 대학 포기할 때 사연 소개해 곳곳 성금 담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죠

통은 최근 내팔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자를 구호하는 특별취재팀의 노력에서 보듯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더욱 감동을 줍니다.

저는 광주일보가 지령 1만호를 갓 넘긴 1984년 1월 광주일보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

격했으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 포기를 고민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가의 장학제도가 변변치 않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던 시절이었으니, 저 혼자만의 어려움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광주일보의 기자가 제 사연을 취재한 후 1984년 1월 25일자 광주일보(확인해 보니 지령 10613호라고 합니다)에 ‘입학금 애타는 의지의 법학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주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진까지 곁들여 상당히 자세히 저의 형편을 보도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우리 지역 독자들들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변곡점에 광주일보와 지역 시민이 함께 있었으

니, 역사적인 지령 2만호 발행을 바라보는 저의 기쁨은 누구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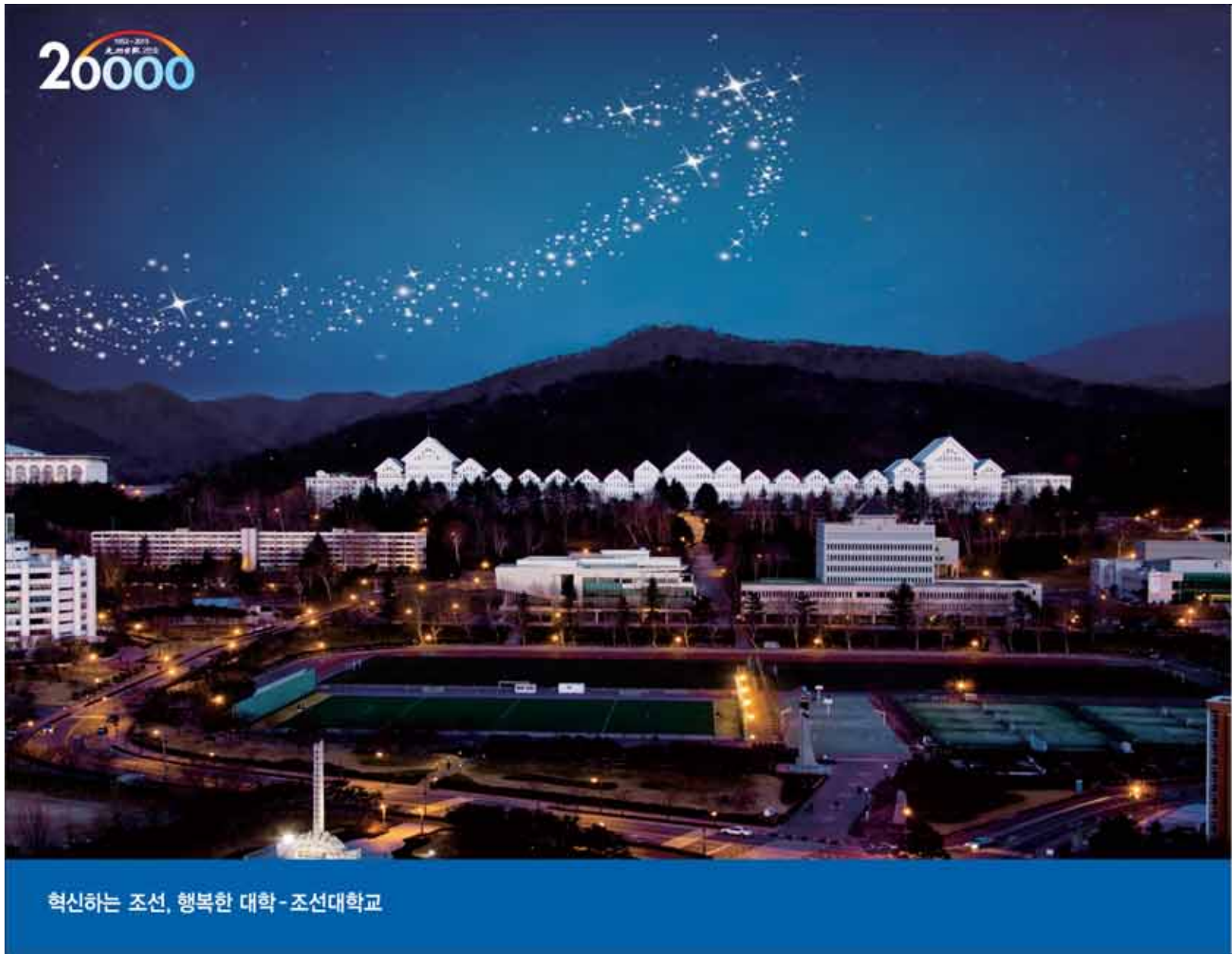
저는 판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초창기를 제외한 대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처리하면서, 비록 부족한 능력이나마 지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것이 저를 키워 준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살아 왔으나, 게으른 성격 탓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늘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사회에 대한 빛은 그럴 때마다 흐트러진 모습을 추스르고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성직자가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사회의 질병은 법관이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듯이, 판사

역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서 나아가 분쟁당사자의 인간관계 회복과 감정의 치유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재판은 마치 수술과 같은 것이어서 질병의 핵심이 되는 원인을 도려낼 수는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수술 후의 회복과 같은 나머지 사명은 결국 다른 사회 주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언론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언론의 주된 사명도 기본적으로는 법관에게 주어질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사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명에 더욱 크게 눈 뜨고, 세상을 화평(和平)케 하는 peacemaker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광주일보의 더욱 큰 발전을 응원합니다.



혁신하는 조선, 행복한 대학-조선대학교

세상을 키우는 대학 조선대학교

사람을 키우는 대학은 많습니다.
함께 나눠 더 큰 세상을 만드는
“함께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국책사업 5관왕 달성
-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 전국 1위
- 재정건전성 우수대학
- 의대·치대·약대·보건대학 등 15개 단과대학을 보유한 초대형 대학, 조선대학교

